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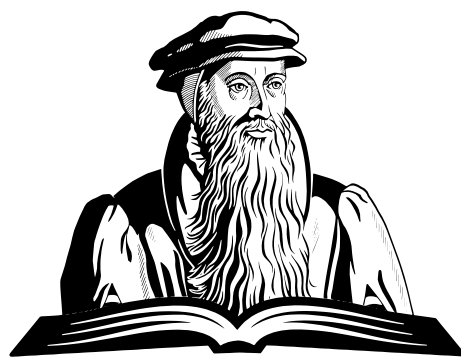
---

#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

## 강의 24: 부활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http://www.freechurchcontinuing.org)

# 학습단계

##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 강의 24

### 부활

#### 강의 주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리부활을 통해 사람과 천사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며, 이를 통해 그의 백성들의 약속된 구속을 확보하셨습니다.

#### 본문: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15:17-18).

### 강의 스크립트 24

성경은 우리가 장엄한 역전으로 부를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속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갑자기 뒤집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기 직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홍해를 등 뒤에 두고 서 있는 상태에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웅망스런 군대였던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는 자신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통해 건너도록 하시고는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이며 얼마나 예상하지 못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구약성경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에스더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은 긴장하여 의자의 끝에 걸터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구약성경은 이런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들이 살던 모든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보겠지만 십자가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견되어 있습니까?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의 육체의 본성은 그 전과 동일합니까? 그 몸은 진짜 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자신을 공적으로 변호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의 구원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신자들의 몸의 부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 역사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치와 그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16:10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2:27-31에서 베드로는 이 본문을 시편16편에서 인용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사야55:3과 시편2:7과 함께 이 동일한 본문을 안디옥에서 한 자신의 설교에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13:30-37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본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분은 요나의 경험을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으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12:38-40에는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사흘째 되던 날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마치 유령과 같이 몸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육체적인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못박혔던 흔적을 보여주셨으며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분의 참된 몸이었고 비록 이제 새롭게 되기는 했지만 죽으시기 전에 가졌던 바로 그 몸이었습니다. 이 몸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으며 그분의 무죄하심에 대한 확실하고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부활이 보여주었던 것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2:36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1:4에서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4:25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1:8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환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제기하는 불신자들의 잦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진리는 정말로 분명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는 서로 관련없는 다양한 증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들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세기에 특히 유대인에게 여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정말로 낮았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금지될 정도의 지위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이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하는 이야기를 꾸며낼리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인들은 여인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과 그분의 제자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증인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거짓말하도록 사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11-15에 나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신을 눈으로 직접 본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5:6에서 바울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들 중의 대다수는 바울이 글을 쓰던 때에도 살아 있었으며 그러니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증언을 모으면 누구도 부활을 논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대적이었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패배하신 메시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는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실제로 부활이 있고 난 다음

에야 믿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교회의 사역과 설교를 이끌어 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과 성경적 정통진리의 핵심입니다. 사실 부활 교리는 구원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에 이 진리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10:9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첫번째 요점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고 말합니다(고전15:17,18) 부활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 부활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신자들이 경험한 과거의 부활 혹은 신자들이 과거에 경험한 영적인 부활입니다. 신약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이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인 반면 다른 측면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성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연결성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제27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해서 성취된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그들의 구원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연합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정답은 사람은 본성상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 강의에서 전적 부패와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자들이 새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2:5,6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2:12,13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신자의 영혼과 구원에 역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4:25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신자들이 지속하는 죄와의 싸움은 그들이 죄를 죽이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외부의 역사에 의존합니다. 신자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아래 있지도 죄를 섬기도록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6:4-10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정서의 전체 방향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로서 영광에 대한 그의 관심사를 쫓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3:1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으며 이 부활의 능력은 그들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부활을 가리킵니다. 죄에서 죽었던 상태에서 빼내어져서 생명을 얻게 된 이를테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옮겨진 신자 말입니다.

셋째로 신자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육신적인 부활입니다. 바로 마지막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질 몸의 부활이죠. 고린도후서4:14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미래에 있을 신자의 몸의 부활의 소망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신약에서 가장 풍성하고 길게 설명하는 장인 고린도전서15장을 펼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구약의 초기 시대에서도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마지막 날에 땅끝에 서게 될 것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구속자를 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욥기19:25-27은 얼마나 아름다운 본문인지요!

이 미래에 있을 신자의 몸의 부활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에 붙어있습니다. 이 사실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과 장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부활을 얻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듯이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도 역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그리스도 옆에 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15:20-23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는 말하자면 계약금과 같습니다. 이 첫 열매는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으므로 그분과 연합된 백성들의 육신도 세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골로새서1:18에서 “그(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좌정하고 있다면 몸도 반드시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의 몸은 정죄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38문은 신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설명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흠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 그분은 그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모두를 의미하는 전체 인격을 구원하십니다. 만약 육신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로마서12:2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산 제사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몸, 그 손, 눈 그리고 로마서6:13이 말하듯 지금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우리 몸의 지체는 마지막 날에 일으키심을 받고 영화되어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소망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섬김 속에 있던 위험과 희생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자신의 몸이 멸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무덤에 묻혀 있는 동일한 육신이 설령 해체되고 고문당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흠과 재에서 부활하여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순교라고 하는 최고의 희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히브리서11:35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순교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육신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일으킴을 받을 것을 알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파멸과 죽음의 위험을 주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은 오늘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 분을 섬기도록 장려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관한 가장 긴 이 장을 마지막 5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때때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과 같은 표현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신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곧 모든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과 은사와 은혜 등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드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현재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말로 변화시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한 주일의 마지막 날에서 첫날,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던 날로 바꾸신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매주 기독교인의 안식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매주 기억하는 날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제 우리는 구속사와 자신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공부에서 그분은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의 승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신 결과 중의 하나 곧 오순절에 주어진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